



### “나의 작업은 내 삶에서 태어난다”

4 전현숙 작가

어떤 이름이나, 패러다임 등 특정 구조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구조로서의 형태는 제한과 한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채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며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내 역량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시켜야 된단 말인가?

작품들은 현실을 마주하며 타인과 자아

의 관계에 대한 사색과 내면의 성장로 그동안 쌓이고 다듬어진 관계와 소통으로서의 '나 자신'을 문제화했다. '그 여자'는 바로 나 자신이며 자전적인 이야기를, 삶에 의한 감정들의 파편들로 나의 내밀한 독백을 진솔하게 담내고자 한다. 작품의 얼굴 형상은 작가나 자신의 자화상이다.

나 자신의 정서 뿐만 아니라, 인간 정서를 표현한 것이 예술 작품의 주요한 특징이라 하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소재로 나의 자전적 이야기를 선택했다. 깊숙이 숨겨진 비밀과 삶이 안고 있는 감정들을 편견 없이

표현하고, 번지르르한 외관 저편에 자리 잡은 사랑과 상처, 누구나 가지고 있을 양면성과 욕망과 꿈, 감춰져 있을 여러 측면을 있는 그대로 표출시키고자 한다. 나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 되지 않는 삶 속에서 요즘 자전적인 내용으로 작업을 풀어나가고 있으며, 복잡하지 않고 별 군더더기 없이 솔직하고 유연하게 표현하려 한다. 이것은 작품의 주된 요소이며, 또 다른 세계로의 물꼬를 트는 것이고, 나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나는 또 다른 '나'를 찾고 자신을 정화하

고자 한다.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의 극복 의지를 내비치는 치유의 수단이며 바로 자아 성장의 과정인 것이다.

- ◆개인전: 16회 (광주, 서울, 안산, 전주, 화순)
- ◆단체전: 250회 (광주, 담양, 보성, 안산 등)
- ◆레지던시프로그램: 2015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다다 레지던시 입주작가
- 2010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제1기 입주작가
- 2009 staart 스튜디오 입주작가
- 2006-2007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



###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 표현

5 강남구 작가

몽환적이고 사실적인 느낌을 통해 사색하게 하는 자연이 주된 소재가 되며 공간과 장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감흥적 인상과 탐구로 근경을 밀도 깊은 분석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그의 작품 중심인 전경에 집중시켜 묘사해 내며 후경은 흐릿하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처리해 작품의 공간감과 완성도를 높여 평면이지만 마치 3D 화면처럼 독특한 시각적 느낌의 감동을 선사한다.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꽃과 풍경의 시간을 끌어내어 화사하고 정겨운 자연의 표정을 다양한 시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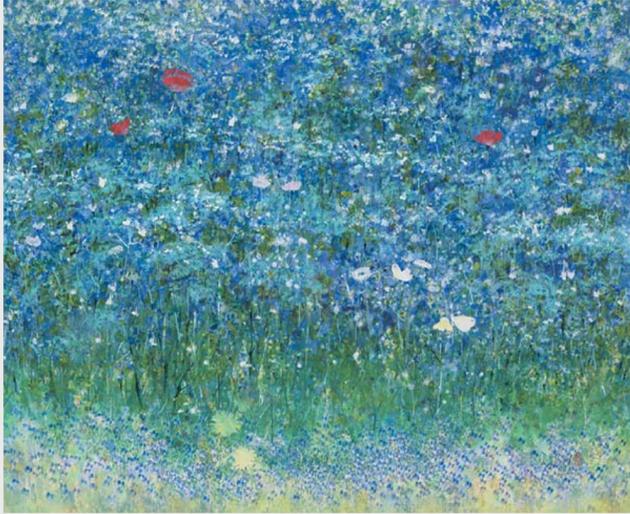
로 표현하고 있다.

최근 연작중인 작품을 통해 대화는 우리들의 삶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끼가 낀 거친 나무의 표피에서 세월의 풍파와 연륜을 느낄 수 있고, 거칠고 투박한 선들에서 꽃이 선사하는 향기와 부드러움, 그 속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거칠고 부드러움이 난무하는 화면은 단색의 색채를 대비적으로 사용하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러나 실제의 표면은 나이프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투박하게 보이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면 실제감이 있는 사실적인 작품으로 착시를 불러 모으기도 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마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

절 같은 빛나고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들은 깊은 낮잠에서 깨었을 때 사물과 시간을 한동안 가늠 못 할 때처럼 재현과 관념적 풍경을 익숙하게 떠돌며 생경하고도 묘한 화면을 자아낸다. 캔버스에 만개한 매화가 사실적이면서 몽환적인 느낌이 그렇다.

- ◆개인전: 53회
- ◆단체전 및 초대전: 700회
- ◆아트페어: 30회
- ◆심사: 대한민국미술대전, 고양시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순천시 미술대전, 정수미술대전, 성진강미술대전, 광주시 미술대전 역임
-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시청, 광주시 남구청, 광주시 광산구청, 용평리조트



### 들꽃에서 피어난 미소가 가득한 삶을 담아

6 염순영 작가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꽃의 색깔과 그것이 어우러져 빛어내는 색감, 머릿속에 남아 있는 잔상들을 하나 둘씩 풀어내며 꽃잎들을 해석해 그려내는 작업을 통해 꽃잎들은 한 움큼의 색 덩어리가 돼 화면에 화려하게 펼쳐진다.

들녘, 흩뿌려진 풀꽃들의 색 빛들, 늘 곁에 있던 꽃과 식물들에 그렇게 신선한 이름이 있었는지, 그렇게 섬세한 색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모양이 예쁘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따스함을 안겨 작업이 진행될수록 새로웠고, 신선했다. 손톱보다도 아니 그보

다도 훨씬 더 작은 꽃이지만, 모두가 다 생생하다. 양 증맛은 모습이 그렇게 빼어날 수가 없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마음에 속 들어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

작지만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풀꽃, 들꽃들의 모습에서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 ◆개인전: 6회(광주, 담양, 화순)
- ◆부스전: 3회
- ◆아트페어: 10회(서울, 전주, 부산, 광주, 여수, 싱가포르)
- ◆단체전: 150회(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등)
- ◆심사위원: 광주시 미술대전, 전라남도 미술대전, 배동신 미술대전 역임

### 부·행운의 상징 복돼지에 빛대 행복한 유토피아 꿈꿔



7 이다애 작가

즐거움 돼지와 '꽃 중의 꽃'으로 불리는 모란(牡丹)은 전통적으로 복(福)과 다산(多産)을 상징한다. 알록달록한 꽃 속의 돼지들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계절을 평온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 작고 귀여운 복돼지들이 복을 가득 불러오길 소망한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복주머니 안에는 금은보화가 넘쳐나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꿈꿔오거나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다.

부유한 삶을 즐기는 돼지들,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복돼지의 모습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따뜻한 그림으로 다가갈길 바라본다.

- ◆개인전: 11회 (광주, 이천, 서울)
- ◆단체전: 50회 (광주, 장성, 해남 등)
- ◆레지던시프로그램: 2021 무등현대미술관 레지던스작가
- 2015 경북문화미술원 레지던스작가
- 2012 대동문화재단 27기 입주작가
- 2011 광주문화나눔 지하철 메트로레지던스 작가
- ◆수상: 2021 배동신 아동미술제 대상 \_문화체육관광부

